

세계적인 건축가와 디자이너, 그리고 발레하는 소년

런던의 6월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전시와 공연으로 채워질 것 같다. 특히 따로 보기도 힘든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기 드문 기회가 될 런던 건축 비엔날레가 눈길을 끈다. 글 여인해(런던 통신원) 에디터 유소라



2006 London Architecture Bien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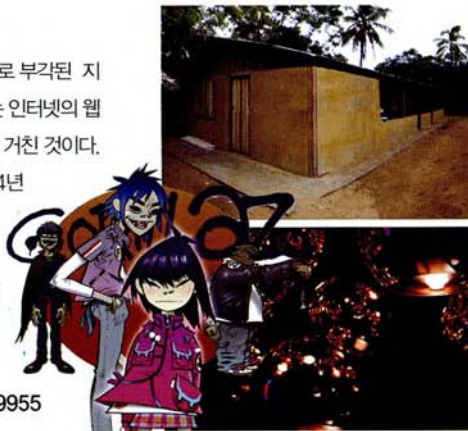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된 런던 건축 비엔날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초청강좌에 1200명이 몰려들었던 지난해의 성공적인 추위에 힘입어 올해에는 풍피두 센터로 유명한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건축계의 거장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의 양떼몰이로 그 시작을 알리게 된다. 노만 포스터는 세인트 폴 성당 앞에서 시작해 템스 강을 가로질러 테이트 모던으로 연결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축한 주인공.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런던 건축 비엔날레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스케줄 및 티켓팅은 웹 사이트를 참조할 것.

www.londonbiennale.org.uk +44 870 247 1207

Designer of the Year

디자인은 더 이상 우아하고 특별한 아트가 아닌, 일상을 함께하는 요소로 부각된 지 오래다. 매일 보는 신문도 즐겨 듣는 음반도 하루 일과의 반을 함께하는 인터넷의 웹 사이트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도 모두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친 것이다. 템스 강변에 테이트 모던과 나란히 위치한 디자인 박물관에서는 2004년부터 매해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제정해 수상한다. 수상자 한 명에게 2만 5000파운드의 거액이 수상되는 이 상은 터너 프라이즈와 함께 다양한 평이 엇갈리는 상이기도 하다. 올해는 버버리의 크리스토퍼 베일리 외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후보 작은 6월 18일까지 디자인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Design Museum www.designmuseum.org +44 870 833 9955



© Architecture for Humanity



Billy Elliot the Musical

초여름을 맞은 런던의 웨스트 엔드는 <빌리 엘리엇 더 뮤지컬>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3월에는 여왕과 필립 공이 가까운 친구들 몇 명과 직접 공연을 관람해 여왕의 인정을 받은 공연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다. 몇 주 전 1주년을 맞이한 <빌리 엘리엇 더 뮤지컬>이 지금 이토록 핫한 이유는 올리버상을 수상한 빌리 역활의 세 명 중 이미 두 명이 더 이상 출연하지 않기 때문. 주인공 빌리 역활을 맡은 세 배우 모두 최연소 베스트 연기상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연에 대한 평은? 공연 전에는 영화로 이미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빌리 엘리엇 더 뮤지컬>에 대한 기대는 반반이었다. 하지만 엘튼 존이 작곡을 맡고 화려한 수상 경력을 지닌 엠버들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구성된 <빌리 엘리엇 더 뮤지컬>은 영화에서 보여준 박진감과 유머,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한 소년의 희망을 영화 이상으로 잘 연출했다는 평을 받는다. 주말 티켓은 모두 매진이므로 주중 티켓을 노리는 것이 좋다. 10월 티켓까지 오픈되어 있으니 서두를 것! 🎟

Victoria Palace Theatre www.billyelliottthemusical.com +44 870 895 5577